

과학자와 AI가 예측한 1만년 뒤의 개

1만 년 후 개의 모습을 예측한 이미지가 공개됐다.

17일 '스푸트니크' (sputnik.kr)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 회사 베이스포스(Basepaws)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수의사와 유전학자들이 AI를 활용해 예상한 1만 년 뒤 개들의 사진을 공개했다.

베이스포스 관계자는 "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"며 "100년 뒤 일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도 바뀌는 중이며,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 변화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이 회사 연구팀은 인공 신경망에 현생종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, 기후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대입해 시각적 상상도를 만들기로 했다. 개는 현재 360종 이상이 지구상에 존재한다. 베이스포스 연구팀은 개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줄 미래의 공통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전제했다. 하나는 온난화로 인해 더욱 더워지는 것이고, 나머지 하나는 빙하기처럼 매우 추워지는 것이다.



▲ 빙하기가 도래할 경우의 달마시안, 닥스훈트, 불독, 잉글리시 미스티프(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), 사진=sputnik.kr

회사는 "만약 지속된 온난화로 지구가 더워지면 인간이 개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이나 돌보는 방식이 바뀔 것"이라며 "먹이 자원이 적어지면서 개의 체중이 감소, 소형화로 이어질 수 있다"고 예상했다. 유전학자들은 개의 몸이 작아지면 필요한 먹이나 에너지양이 적어지고 몸을 식히기도 쉬워진다고 봤다. 경우에 따라 개의 피부색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했다. 기온이 높아져 털도 필요 없게 되고 극단적으로 더워질 경우 개 대부분이 야행성으로 변하며, 체온을 낮추기 위해 머리와 귀는 한층 커질 수 있다.

빙하기 시나리오의 경우, 개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털이 점점 두꺼워진다. 추운 날씨에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체지방이 축적되고, 사냥이나 달리기엔 필요한 더 강한 근육을 가진 늑대 같은 체질로 돌아갈 것으로 점쳐졌다. 베이스포스 관계자는 "엄청난 빙하기에 개가 다시 늑대처럼 변모하면 인간과 식량 및 보금자리를 다투게 될지도 모른다"고 말했다.



▲ 온난화로 지구 기온이 올라갈 경우의 골든 리트리버, 푸들, 포메라니안, 그레이하운드(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), 사진=sputnik.kr

스페셜

한방침 + 물리치료

Acupuncture + Massage

10번 패키지 구입시 1번 Free

2022 Top AWARD

“재활 통증 전문”

2022 Top Doctors of Excellence Acupuncturist에 선정된 여성 한의사가 세심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

침

부항

뜸

보약

공진단 선물용

상품권도 판매합니다.

- *상화탕
- *녹용대보탕
- *십전대보탕
- *각종 한방 TEA

각종 보험, 통증, 한약, 교통사고
건강상담, 메디케어, 메디케어(Advantage)
Clever Care, HSA, FSA 환영

푸른솔한의원

PINETREE ACUPUNCTURE

월 - 금 9:00 AM ~ 6:00 PM 토 10 AM ~ 1 PM 일 Closed

714.736.0208

2619 W. Orangethorpe Ave. Fullerton, CA 92833



JJ 웨스턴 건설

WESTERN CONSTRUCTION, INC.
JJ WESTERN PAINT



리모델링 (하우스/커머셜)
 키친/화장실
 플러밍, 전기공사
 타일/마루



페인팅 (하우스/커머셜)
 캐비닛 Refinishing
 욕조 재생, 창문
 ADU 전문
 지붕 공사/수리



Tel. (714) 501-7726

Lic. #1068622
Bonded & Insured

7335 Orangethorpe Ave., Buena Park, CA 90621
 jjwesternconstruction@gmail.com